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만족도, 학교생활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성향의 관계

고의석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School Life Stress, and School Violence Tendency

Wi-Sug Ko

Department of Sports &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교육에서 체육수업의 만족도, 학교생활 스트레스 및 학교폭력성향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4곳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총 550명을 표집 하였으며, 질문 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 잘못된 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8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6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0.0 및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는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는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school life stress, and school violence tendency. A total of 550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from 4 high schools in D city and 83 were discarded because of missing values. By analyzing the total of 467 questionnaires with the SPSS 20.0 and AMOS 20.0 statistics programs,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ol life stress. Second, school life str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ol violence tendency. Third,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ol violence tendency mediated by school life stress.

Keywords :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school life, stress, school violence tenden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는 청소년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체

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1인 1스포츠 활동)’,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 건강체력 강화’, ‘학교체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대국민 인식제고’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 및 관리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교육부(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지

본 논문은 대구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Wi-Sug Ko(Daegu Univ.)

Tel: +82-53-850-6098 email: psymentor@daegu.ac.kr

Received September 22, 2017

Revised (1st October 17, 2017, 2nd November 6,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역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예산을 분담하고 전국적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7,873개교에 11,448명의 토요일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2].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육성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지원 사업, 학교체육 활성화 창의경영학교 내실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한편 이러한 스포츠 활동의 활발한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의 완화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스포츠 및 체육활동의 참여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3-7]. 스트레스는 라틴어로 팽팽하게 조인다는 뜻의 “stringer”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8]. 또한 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정한 행동계획에 따라 생활하는데, 예기치 않는 행동의 방해로 말미암아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되어 불안과 같은 정서반응을 일으켜서, 개인의 행동계획을 방해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9]. 특히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비행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10,11].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급변하는 주변 및 사회 환경과 과도한 학업경쟁, 대학입학,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12]. Band 그리고 Weisz[13]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중대한 삶의 사건’과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중대한 삶의 사건’이란 단편적 사건보다는 장기간의 스트레스 대응 양식 과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족의 죽음, 부모의 이혼, 불의의 사고 등을 포함 한다[13].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단편적인 기분 좋은 일, 속상한 일 등으로 평범한 청소년이 모두 겪을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13]. 즉,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일들에도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14]. 통계청이 조사한 2017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13-19세의 청소년의 50.5%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으며, 32%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하였다[15].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에서보다 학교생활에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더욱 문제시 되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10,11].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17]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37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 8천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감추고 있는 피해자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인원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사이버 괴롭힘(10.0%), 금품갈취(6.5%) 등이 뒤를 이었다[17]. 최근 더욱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며, 흉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청소년들끼리의 작은 다툼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이 성인 범죄에 이르렀다[18]. 피해학생은 두려움, 공포,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18].

이상으로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참여, 스트레스, 학교폭력은 상호 밀접한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육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스포츠참여, 스트레스, 학교폭력의 상호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2 가설 설정

이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교과수업의 만족, 학교생활 스트레스, 학교폭력성향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포츠참여는 스트레스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7]. 또한 스트레스는 학교폭력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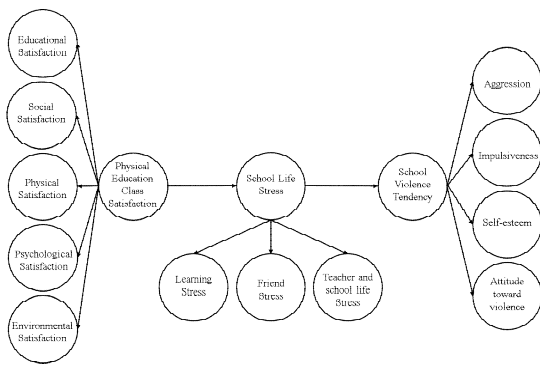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0,11]. 마지막으로 스포츠 참여는 학교폭력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9]. 즉,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 첫째, 청소년의 체육교과수업 만족도는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셋째, 청소년의 체육교과수업 만족도는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467)

	Spec.	N	Percentage
Gender	Male	198	42.4
	Female	269	57.6
School year	1	160	34.3
	2	158	33.8
	3	149	31.9

청소년 중 특히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에서 성년자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급변하는 주변 및 사회 환경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못지않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폭력행위 또한 심한 경우 성인의 범위에 못지않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

구에서는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이 연구는 D시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550명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회수된 550부의 설문지 중 질문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8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6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 설문참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하였다. 특히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자료를 수정·보완하여 고안하였다. 먼저 체육교과수업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이은화[20]가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하위 요인은 교육적 만족(educational satisfaction), 사회적 만족(social satisfaction), 신체적 만족(physical satisfaction), 심리적 만족(psychological satisfaction), 환경적 만족(environmental satisfaction)과 같은 5가지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육교과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은 신미옥[21]의 학교 스트레스 및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해 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 학습(learning) 스트레스, 친구(friend) 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생활(teacher and school life) 스트레스가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성향에 대한 문항은 박금녀[22]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격성(aggression), 충동성(impulsiveness), 자아존중감(self-esteem),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violence)와 같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방법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독립변인 t-test 등을 실시하였으며,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매개 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95% 신뢰도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physical educ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Gender	N	M	SD	t
Educational Satisfaction	Male	198	3.52	.72	2.90**
	Female	269	3.32	.73	
Social Satisfaction	Male	198	3.42	.80	2.87**
	Female	269	3.21	.76	
Physical Satisfaction	Male	198	3.69	.77	3.77***
	Female	269	3.42	.79	
Psychological Satisfaction	Male	198	3.68	.67	5.40***
	Female	269	3.29	.83	
Environmental Satisfaction	Male	198	3.56	.71	5.08***
	Female	269	3.20	.77	

*p<.05, **p<.01, ***p<.001

성별에 따라 체육수업 만족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3. Difference of school life stress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Gender	N	M	SD	t
Learning	Male	198	3.18	.87	2.40*
	Female	269	2.97	.90	
Friend	Male	198	2.06	.84	1.48
	Female	269	1.94	.76	
Teacher and school life	Male	198	2.12	.81	1.47
	Female	269	2.01	.75	

*p<.05, **p<.01, ***p<.001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세부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 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세부적으로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of school violence tendency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Gender	N	M	SD	t
Aggression	Male	198	2.17	.79	-.52
	Female	269	2.21	.83	
Impulsiveness	Male	198	2.46	.70	-1.45
	Female	269	2.56	.74	
Self-esteem	Male	198	3.32	.83	.30
	Female	269	3.30	.83	
Attitude toward violence	Male	198	1.92	.79	3.99***
	Female	269	1.64	.67	

*p<.05, **p<.01, ***p<.001

3.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825.567$, $\chi^2/df=1.564$, $p=.000$]이며 CFI=.97, TLI=.96, SRMR=.04, RMSEA=.04으로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CFI와 TLI 0.9이상 RMR 0.05이하 RMSEA는 0.1이하로 보고 있다[23,24].

즉, 본 연구의 모델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인적재치에 있어서는 4가지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이 기준치인 .70이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4 문항은 선행연구[20-22]에 의거하여 제거하지 않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신뢰도에 있어서는 모든 요인이 Cronbach Alpha .7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23,24].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이용하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오차추정구간(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모든 변수들에서 .50 이상을 나타내며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23,24]. 또한 변수들 간에 어떠한 상관계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23,24]. AVE, Cronbach Alpha, 평균값, 요인적재치는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5. Summary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Cronbach Alpha, CR, AVE.

	Item	M	FL	AVE	α
Educational Satisfaction	EAS1	3.27	.72	.70	.83
	EAS2	3.49	.88		
	EAS3	3.46	.91		
Social Satisfaction	SAS1	3.28	.93	.84	.94
	SAS2	3.36	.91		
	SAS3	3.27	.92		
Physical Satisfaction	PHS1	3.51	.91	.85	.94
	PHS2	3.55	.92		
	PAS3	3.56	.94		
Psychological Satisfaction	PSA1	3.48	.87	.71	.87
	PSA2	3.36	.88		
	PSA3	3.55	.78		
Environmental Satisfaction	EAS1	3.21	.69	.67	.85
	EAS2	3.39	.88		
	EAS3	3.48	.88		
Learning Stress	LES1	3.39	.71	.50	.74
	LES2	2.93	.74		
	LES3	2.87	.65		
Friend Stress	FRS1	2.18	.73	.62	.82
	FRS2	1.88	.80		
	FRS3	1.93	.83		
Teacher and school life Stress	TSS1	2.01	.76	.53	.77
	TSS2	2.20	.69		
	TSS3	1.99	.75		
Aggression	AGG1	2.38	.74	.53	.77
	AGG2	2.03	.71		
	AGG3	2.18	.75		

Impulsiveness	IMP1	2.58	.76	.50	.74
	IMP2	2.79	.59		
	IMP3	2.19	.77		
Self-esteem	SEE1	3.46	.86	.74	.89
	SEE2	3.27	.89		
	SEE3	3.21	.84		
Attitude toward violence	ATV1	1.71	.85	.70	.87
	ATV2	1.82	.87		
	ATV3	1.77	.79		

3.3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chi^2=987.865$, $\chi^2/df=1.703$, $p=.000$]이며 CFI=.96, TLI=.95, SRMR=.06, RMSEA=.04으로 나타났다.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CFI와 TLI 0.9이상 RMR 0.05이하 RMSEA는 0.1이하로 보고 있다[23,24]. 즉, 본 연구의 모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결과 체육교과수업 만족도는 학교생활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p > .001$). 즉, 학교체육수업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는 학교폭력성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2$, $p > .001$). 즉, 학교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체육수업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성향에 간접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 $p < .0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6. Summary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ath	Direct	Non-direct		
	β	β	95% CI	
			LL	UL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 School Life Stress	-.26***			
School Life Stress → Stress → School Violence Tendency	.72***			
Physical Education class satisfaction → School Life Stress → Stress → School Violence Tendency		-.19**	-.29	-.09

** $p < .01$, *** $p < .001$, LL = , UL=

4. 논의

이 연구의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한중구[25]의 연구에 따르면 체육수업 만족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예원[26]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특히 김윤희[27]의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들의 약 69.9%가 체육수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1을 검증한 결과, 체육수업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김포근[3]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각하는 체육수업의 만족도가 스트레스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재[4]은 서울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4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총 359명을 분석한 결과, 체육수업 만족도는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밝혀냈다. 세부적으로 수업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전성준과 박준동[5]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가족관계, 동성친구, 학업문제, 일상생활 등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운[6]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이 여가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낮으며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안효성[7]에 따르면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를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임성택과 김성현[11]의 고등학

생 1,1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자극의 수준은 학교폭력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격성 및 폭행과 같은 적대적 태도와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28,29].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수업 만족도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성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종경, & 서동균[19].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스포츠참여는 폭력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는 그동안 사회학과 스포츠 및 여가학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던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체육교과수업 만족도, 스트레스, 학교폭력성향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D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5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Windows SPSS 20.0,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교 체육수업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교육과정에 있어서 체육수업은 단순한 신체적 기능 향상 및 건강 유지를 넘어 학교생활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체육수업이 학교생활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가를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교폭력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체육교과수업 만족도는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학교폭력의 예방법으로 체육교과수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체육활동 참여를 통

한 재발방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학교체육수업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학교폭력성향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체육수업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체육에 있어서는 수업장소 및 수업 용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 능력 및 지도 방식이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각 학교 체육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를 실시하는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체육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현재 학교폭력에 가담하고 있거나 가담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특정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더욱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실시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국내 청소년들과 국외 청소년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제한된 장소와 장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체육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체육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의 지도 능력 및 유형이 체육수업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1]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6 Activation plan for physical education. Seoul: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6.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sport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 [3] P. G. Kim,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and stress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mong female and mal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ogether",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2010.
- [4] S. J. Lee, "The 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which selected physical education subject",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2011.
- [5] S. J. Jeon, J. D. Park, "Effect of intramural sports participation on stres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onga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 vol. 25, pp. 77-88, 2007.
- [6] J.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s activity and stress, school life adjustmen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20, no. 1, pp. 633-644, 2003.
- [7] H. S. Ahn, "Effect of sports club activity on school satisfaction and str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Science, vol. 26, pp. 143-160, 2014.
- [8] J. M. Ivancevich, M. T. Matteson,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Dallas: Scott, Foresman, 1980.
- [9] G. Mandler, D. L. Watson, "Anxiety and the interruption of behavior", In C. D. Spielberger (Ed.), Anxiety and behavior (pp. 263-288), New York: Academic Press, 1966.
DOI: <https://doi.org/10.1016/B978-1-4832-3131-0.50016-0>
- [10] S. A. Kim, "The effect of stress and attachment o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 focus on dual experience group and general experience group",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 2, pp. 5-36, 2005.
- [11] S. T. Lim, S. H. Kim, "The controlling and moderating roles of stress coping styles in the relations between stressors and school viol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2, pp. 451-466,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2.200706.451>
- [12] Y. B. Kim, "Developing and applying on anti-stress program for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2001
- [13] E. B. Band, J. R. Weisz,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2, pp. 247-253, 1988.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4.2.247>
- [14] G. I. Kim, H. T. Won, M. J. Kim,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Research, vol. 1 pp. 21-34, 1983.
- [15]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Statistics on youth",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 [16] H. O. Oh,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self-control and tendency toward school viol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3, no. 2, pp. 373-387, 2014.
- [17]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6 2th study on school violence. Seoul: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7.
- [18] Y. H. Ji, School violence. Seoul: Green, 2016.
- [19] J. K. Lee, D. K. Seo,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y and stress", Korea Sport Research, vol. 15, no. 6, pp. 1491-1499, 2004
- [20] E. H. Lee, "The effects of girl high school students' flow for P.E. class on their satisfaction of P.E. class and

- exercise adherence",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2015.
- [21] M. O. Shin, "The Influences of school stress and self-control ability on suicide thoughts and self-injury trials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5.
- [22] G. N. Park. "The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reduce school violence potentiality of a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2.
- [23] J. J. Song, SPSS/AMOS statistics analysis method. Seoul: 21century Books, 2012.
- [24]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411-423, 1988.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25] J. G. Han, "The interac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hysical education teacher clas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3.
- [26] Y. W. Seo, "The effect of physical education (P. E.) attitude on the P.E. class concentration and class satisfac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27] Y. H. Kim, "Perceptions of enjoyment in physical education : A students'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6, no. 2, pp. 93-110, 1999.
- [28] S. C. Han,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Kyungsan University, vol. 12, no. 1, pp. 43-67, 1994.
- [29] G. H. Han, H. S. Jang, K. S. Ahn, "The role of adolescents self-esteem in stress experiences, coping against them, and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3, pp. 385-402. 2004.

고 의 석(Wi-Sug Ko)

[종신회원]



- 2001년 2월 :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체육학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Sport psychology, Counseling, Cognitive strategies